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 일	19:00 (청 년)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유 아 세 례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연령회 회장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9월 3일(일), 11:40	강당
M.E.	9월 3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9월 5일(화), 10:30	2교실
1Cu-우리어머니	9월 10일(일), 12:00	강당
2Cu-사도들의 모후	9월 10일(일), 13:30	강당
임원모임	9월 13일(수), 20:00	식당
재녀를 위한 기도	9월 14일(목), 19:40	1교실

◎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9월 5일(화), 20:00	2구역	강당
9월 12일(화), 20:00	8구역	강당
9월 19일(화), 20:00	14구역	강당
9월 26일(화), 20:00	21구역	강당

◎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시 : 9월 4일(월), 10시
- 레지오 전단원 2차 교육
 -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 단원(일반신자 가능)
 - 일시 : 9월 17일(일), 14:00
 - 장소 : 본당 대성전
- ‘2024년 부활’ 세례반 모집
 - 주일반 : 일요일 오전 9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알림

- 9월 7일(목) 10시 30분 강당에서 시니어 아카데미 2학기 개강합니다.
- 추석 합동 미사에물은 반드시 9월 27일(수)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성서사 문서선교

월간 「생활성서」와 각종 신앙 서적 홍보를 위하여 가리따스 수녀회에서 본당을 방문합니다.

- 일시 : 2023년 9월 16일(토) ~ 17일(일)
 - 주관사 : 예수님의 가리따스 수녀회의 생활성서사
-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1인 1구좌 후원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9/1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1구역	청소	2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 23일~ 8월 29일)

• 교무금		9,526,000원
• 주일헌금		5,297,600원
•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	1,609,000원
	이성일50만원 정영자 1만원 김○○30만원	
	김수자10만원 김숙자 5만원 서인순 5만원	
• 감사헌금	정봉순 5만원 서상례 5만원 안옥연 5만원	
	김진수10만원 손연일10만원 김영숙 3만원	
	장정림10만원 조성옥 5만원 임선자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9/3	손진희	심재순	신종구	유숙종	최상림	윤상기
9/10	구민서	오성환	김영균	김진수	유숙종	최웅조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9/3	최영만	박승환	손상민	김인기
9/10	최창열	옥윤필	이계명	김영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19. 진보와 인간 능력을 비이성적으로 확신하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 사회 한쪽에서는 더 비판적인 접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리고 애뜻한 관심과 더불어 환경과 자연 보호에 대하여 사람들이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이상 감추어 둘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보 축적이나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1. 오염과 기후 변화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

20.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오염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건강에,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난방에 사용하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염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 공장 매연, 토양과 물의 산성화 물질, 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일반적인 농업용 독극물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기술은 문제가 얹히고설킨 관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다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21.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더불어 유해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과 기업, 건설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더불어 의료 폐기물, 전자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때 아름다웠던 풍경이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버린 것을 탄식합니다. 산업 폐기물만큼이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도, 비록 지역의 독성 물질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몸속에 유독 물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